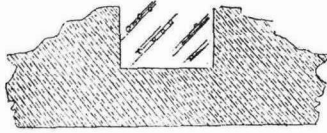


(1:2) 平面圖



突起를 이 곳에 插入시켜 直立케한 것이 데 이 같은 手法은 巨大한 石像에서도 同一함을 指敵할 수가 있다. 또 이 蓮瓣의 樣式은 隣近地域인 燕岐郡 碑岩寺 四面 石像이나 現在 公博

公州邑 鳳凰山에서 日帝時에 出土되었다고 하는 小品인데 蠟石製로서 灰黑色을 보이고 있다. 不等邊八角形으로서 上面 中央에는 圓形이 있고 그 外周에는 十八瓣의 重蓮이 새겨졌고 中心에는 矩形孔이 있으며 그 앞에 兩足指가 새겨져 있다. 이것으로 보아 이 臺座는 元來 立像의 것이 틀림없이 身部下底의 突起를 이 곳에 插入시켜 直立케한 것이 데 이 같은 手法은 巨大한 石像에서도 同一함을 指敵할 수가 있다. 또 이 蓮瓣의 樣式은 隣近地域인 燕岐郡 碑岩寺 四面 石像이나 現在 公博

公州博 所藏 佛像臺座石 黃 壽 永

※ 韓紙에 墨書 橫一四二·五cm 縱四五·三cm

- 鐵物監官杞摠主 簿崔恭泌
- 打造監官折衝 金在元
- 部將 金出煥
- 燔瓦監官部將 金在玉
- 秋德敏
- 丹艸都色 金之政
- 都木手把摠 鄭益元
- 間良 鄭小出
- 都石手間良 朴桂柱
- 都策應行首敎鍊官嘉善具行準 由吏 金龍旭

으로 移管된 瑞光庵千佛三尊碑像같은 것과 同式임을 알 수 있음에서 新羅統一初期에 流行된 것으로 推定된다(이 같은 蓮瓣樣式이 경주 四天王龜跌碑座에서 볼 수 있는 것도 注目된다). 그 외에 臺石側面에 雙條線이 둘러있는 것은 오랜 手法으로 생각되는 바 三國期百濟金銅菩薩立像(例如窺岩面寺址出土舊庭瀨像)에서 그 先例를 찾을 수가 있다. 石製立像蓮花臺座의 가장 高古한 遺例의 하나인가한다(實測圖는 金永培氏가作成한 것으로 感謝를 드린다)

考古美術 一〇

◎ 文化財委 第一分委(十五次)

十月 七日 午後三時 文化財管理局長室에서 開催되었는데 金宰基 金載元 金斗鍾 李敏載 李弘植 李相佰 金元龍 黃壽永 鄭局長 出席하였다. 討議案件

- 1, 永久保存財產保護區域劃定(油印刷) 四件: 可決
- 2, 先史住居遺跡發掘許可: 天原郡 歡成面 斗井里 三一 번지에서 國立博物館員 擔當: 可決
- 3, 石窟庵前室屈曲部の 解體資料檢討: 黃委員이 提出한 別冊의 圖面 寫眞文 獻抄를 黃委員이 說明한 後 金載元委員의 提議에 따라 十月 十二日 全員 石窟庵現場에 出張하여 審議決定지우기로 하다.

◎ 文化財 第一分委(十六次)

十月 十二日 午後四時 慶州石窟庵工事 監督官事務室에서 開催되었는데 出席委員은 金宰基 金載元 李弘植 李敏載 金斗鍾 金元龍 黃壽永과 其外에 柳海宗監督官 李浩官 林泉의 諸氏

- ① 石窟庵前室入口左右의 屈曲部展開與否에 對하여는 會議開催前에 現場에서 的說明과 論議가 있었다. 會議에 있어서는 먼저 黃委員으로부터 前室十分之一模型을 놓고 屈曲部가 展開되어야 할 理由로서 前室設置의 意義와 그 樣式 및 石造架構의 原狀 등을 들이 說明하였고 이에 對하여 金元龍委員의 反對意見이 있었으며 아울러 各委員 및 柳現場監督官 林泉氏 등의 發言이 있었